

어린이 안중에 없는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일부 직원 불친절 운영... 인기시설 이용시간·횟수 제한

아이들 활동 위축... 마음껏 뛰어노는 시립미술관과 대조

설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박수영(여·40)씨는 딸(9)과 함께 광주시 동구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을 찾았다가 기분이 몹시 상했다.

박씨는 이날 딸을 위해 오후 4시10분부터 30분간 종이접기 등 일상재료로 악기를 만드는 '뚝뚝 악기 만들기' 체험활동을 신청했는데, 한 도슨트(docent, 전시해설자)로부터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안 된다"라는 짜증 섞인 말을 들은 것이다.

박씨는 "딸을 입장시킨 뒤 휴대전화를 보니 4시11분이었다"면서 "늦지도 않았는데, 딸 아이 앞에서 면박을 당하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인 박주희(여·39)씨는 지난 주말 아들(7), 조카(6) 등과 어린이 문화원 내 어린이놀이공간인 '생각공작소'를 찾았다가 직원들의 강압적인 통제방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박씨는 "생각공작소는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스펀지 블록 등을 가지고 건축 놀이 등을 하는 곳인데, 아이들이 블록 위에 잠시 앉기라도 하면 직원들이 안전 등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경고성 말을 하더라"면서 "아이들이 도슨트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언했다.

전국 최대 어린이 체험 시설을 자랑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이 일부 직원의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운영으로 방문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반면 어린이 미술관을 운영중인 광주시립미술관은 아이들이 미술작품을 마음껏 만지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해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한 광주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민원 제기'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접수된 민원은 체험을 하나라도 더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처럼 어린이문화원의 불친절한 운영 행태는 개장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용객들의 주장이다.

문화원측은 또 쥘트랙 등 일부 인기시설의 경우 이용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운영여건 등을 이유로 사용 시간과 횟수 등을 제약해 이용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이용객은 "어린이문화원 시스템 자체가 이용자의 편의보다는 시설 운영자의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듯하다"면서 "국립시설이다 보니 개인시설처럼 수익을 내지 않아도 돼 이용객은 안중에도 없는 것

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는 "안전상의 문제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 좀 과도하게 표현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수영 민들레야동가족상담센터 소장은 "아이들의 놀이를 제약할 경우 자신감이나 인지 능력 등이 떨어지고 창의성 향상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립미술관내에 어린이 미술관을 운영 중인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어린이 미술관에서는 아이들이 미술품을 마음껏 만지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어린이 시설인 만큼 어린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총 147만500여명이 다녀갔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2 해질 18:20
달출몰 10:19 달지름 23:35

산불조심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끼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2/6	보성	구름 많음	-2/6
목포	구름 많음	-2/3	순천	구름 많음	1/7
여수	구름 많음	2/8	영광	맑음	-4/3
나주	맑음	-3/6	진도	구름 많음	-2/3
완도	구름 많음	0/7	진주	맑음	-3/6
구례	맑음	-3/6	군산	맑음	-3/5
강진	구름 많음	0/7	남원	맑음	-4/5
해남	구름 많음	-1/6	축산도	구름 많음	0/2
장성	맑음	-3/5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면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서부	면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생활지수

니출중	높음
감기	매우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45	05:35
여수	23:07	17:50
	06:09	00:15
	18:36	12:27

주간 날씨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	☀	☀	☀	☀	☀	☀
-4/8	-2/10	-3/9	-1/10	1/11	1/10	1/11

전남교육청 비정규직

올해 477명 정규직 전환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46개 직종 477명의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134개 직종 5022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46개 직종 4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9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직종별 업무 특성과 정규직 전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기존 무기계약 대상 직종으로 관리해온 과학실험보조원 등 13개 직종 196명, 기간제 근로자 대상 직종인 학습심리상담사 등 31개 직종 281명이다.

교육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교사 등 4285명은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운동부 지도자 260명은 재임용을 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상충하는 부분이 해결되면 긍정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점희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시월 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올해도 건강하세요" 20일 오전 광주시 남구 대촌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대촌동 합동세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서로 덕담을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서 유치장 갇힌 피고인 야간에 변호인 접견 허용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가 야간에 변호인을 접견하려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된다.

경찰청은 "유치인의 접견교통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

칙'에 근거해 주중 오전 9시~밤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만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규정 시간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한다.

변호인 접견에는 유치인 보호관이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은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을 설치한다.

야울러 가족 등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도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한 보장하고, 접견을 금지하려면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 주무과장 결정까지 받도록 했다. 접견 제한 취지와 불복 절차 안내는 본인과 가족에게 통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경찰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우치동물원 새끼 호랑이 참사

어미가 출산후 잡아먹어...동물원, 산실 격리 등 조치 못해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어미 호랑이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물원 측은 호랑이가 임신한 사실조차 몰라 산실(産室) 격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5일 오후 동물원 내 아프리카관에서 뱀골산 호랑이 '러브(9살)'가 방사장에서 관람객이 보는 가운데 새끼 한 마리를 출산했다.

출산 전에 호랑이를 내실(內室)로 유도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 최소한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물원 측은 "출산 확인 뒤 다음날 새끼 호랑이가 어느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며 "어미가 새끼를 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치동물원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호랑이가 태어난 새끼를 잡아먹기도 했다.

광주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러브가 초산인 데다 배도 거의 부르지 않아 임신 사실을 전혀 몰라 산실 격리 등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사육사가 2명이거나 부족한 점도 동물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국 의대 내년 신입생 2927명 선발

37곳 역대 최대...원광대·전북대 서남대 뚝 한시 증원

내년 전국 37개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인원이 2927명으로 올해보다 15%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조선대 의대는 89명에서 125명, 차대는 56명에서 80명으로 정원이 크게 늘었다.

20일 전학사에 따르면 2019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인원은 서울대 135명, 연

세대 110명, 성균관대 40명, 가톨릭대 93명 등 37개 대학 2927명이다.

2018학년도 선발 인원 2533명보다 15.6%(394명) 증가했다.

원광대와 전북대는 폐지가 결정된 서남대 의대 입학정원(49명)을 한시적으로 넘겨받아 이전보다 많은 학생을 뽑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의료광고심의일 제 17073-총-83334호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판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차다리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허리디스크! 내시경으로 절개없이 해결 가능?

비수술적으로 대부분 치료 가능합니다. 비절개로 어깨나 무릎처럼 양측 삽입구를 통한 일반 내시경 수술로 디스크 치료가능합니다.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케어!

첨단우리병원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관절 치료!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